

지역 소식통

고창군,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고창군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기간을 11월 4일까지 연장한다. 신청기간 연장은 오는 28일까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1차 신청 기간 동안 비싼 영농철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추가 신청을 받기 위한 조치다.

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작년 12월 대비 올해 5월 상승한 면세유 가격 차액(경유 644원, 휘발유 552원)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20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과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농기센터, 축산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평가회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가 축산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 분석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일 시범사업 추진 농가와 축산관계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분야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를 마쳤다.

평가회에서는 올해 축산분야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정읍시는 축산분야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3억7천만 원을 투입해 5개소 대상 3개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우 유전자정보 기반 정밀사육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사육 생산비를 절감하고, 육질·육량 등급을 개선했다.

또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지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자동 가축분뇨 발효 건조기를 보급, 발효 기간을 단축, 고품질 완숙퇴비를 생산·유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늘 시민 뜻 세심하게 살필 것”

이학수 정읍시장,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서 '시민중심 으뜸 정읍' 실현 다지기 강조



이 시장은 또 △지역 일자리 취업 증대센터 확대 운영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전용 병동 설립 △정읍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시민 소통실 신설 등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도 소개했다.

특히 공약 사업과 관련 "8개 분야 78개 사업에 1조2,766억 원이 투입된다"며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법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적·재정적 활동을 신속히 착수해 공약사항을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더 큰 노력으로, 더 큰 열정으로, 더 큰 희망으로 열심히 나아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더 나은 내일이라는 수확을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계획한 모든 일이 성과를 내고 순항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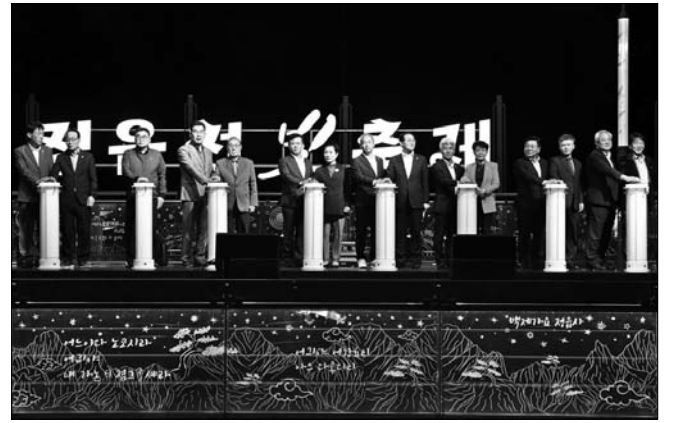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늘 시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구호로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변화없이 시민 우선의 시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항상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듣겠다"면서 "모든 정책은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결정하지만 시민들께서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시민과 함께 정읍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이 시장의 남다른 각오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다짐과 함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주요 성과로는 △모든 시민 대상 1인당 20만 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 지원 △지역화폐인 정읍사랑 상품권 400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LED 경관조명이 정읍천의 가을밤을 밝힌다.

## ‘정읍천 수놓은 빛의 향연’

정읍천 빛 축제, 11월 13일까지... 불거리·즐거거리 '풍성'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LED 경관조명이 정읍천의 가을밤을 밝힌다.

정읍시는 지난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37일간 '정읍천, 달빛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2022년 정읍천 빛 축제'를 열고 있다.

이번 빛 축제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빛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도심형 야간축제를 통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했다.

빛과 물, 음악이 함께하는 가을 이벤트 정읍천 빛 축제는 화려한 조명 빛의 포토존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어 친구와 연인 가족들과 울거울을 추억 할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아늑한 조명과 따뜻한 감성으로 정읍의 사계(꽃)를 표현한 빛 터널과 정읍의 역사와 사랑, 아이들을 표현한 유동 조형물 달빛에 물든 빛으로 이글거림·초대 등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보일 예정이다.

또한 벚꽃·단풍·달 등의 모양으로 꾸며진 사랑의 빛과 파도처럼 일렁이는 희망의 빛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가을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점등 시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다.

행사 기간 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을빛의 낭만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어쿠스틱 통기타 연주와 감성 발라드 등의 상설 공연도 열린다.

또 추억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 프린팅과 미술 댄스 방한제(디퓨저)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선사한다.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정읍시 SNS 계정을 친구로 추가하거나 해시태그 후 사진을 게시하면 생화차 거리 합인쿠폰과 LED 상품 등을 증정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 민선 8기 부안군수 공약 80개 최종 확정

### 군 홈페이지에 공표

부안군이 지난 7일 민선8기 부안 대도약을 위한 80개 군수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민선 8기 권약현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및 이행가능 여부, 재정확보 계획, 문제점이 있는 공약에 대한 대책 등을 부서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마치고 지난 9월 28일 부안군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80개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공약 달성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5천억원이다. 다만, 국비 3,490억원, 민간투자 6,810억원 등을 제외하면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국비는 2,980억원으로 순수 국비 투자는 최소화한 계획이다. 따라서 부안군에서는 공약 달성을 위한 국비와 민간자본 등 재원 확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발품 세일즈 행정을 예고하고 있다.

민선8기 부안군 80개의 공약은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적극행정 △소득을 높이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지



역산업 미래 먹거리 개발, 푸드플랜, 일자리 등 부안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한 부안미래 비전에 담겨있다.

셋째, 지구촌 사람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분야 공약은 1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비는 4개 분야 중 가장 많은 6,912억원이 투입된다. 부안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공항 마리나 항만연계 크루즈 기항지 유치 등 부안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나아가게 하는 기반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넷째,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 분야 공약은 24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복지와 관련한 공약이 15건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부안 군립도서관 옆에 조성되고 있는 종합가족 센터는 육아와 보육,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생애주기별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약은 부안군민과의 약속이며 군수로서 부안군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갖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담은 군민과의 계약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일반산업단지, '신활력산업단지'로 명칭변경 추진

고창일반산업단지가 군민 대다수의 의견으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꾼다.

고창군은 고창일반산업단지 명칭 변경 설문조사 결과 '신활력산업단지'로 최종 결정돼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민들은 기존 산업단지 명칭을 과감히 벗어날 것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브랜드 가치를 표현할 수 있길 바랐다.

고창일반산업단지의 새로운 명칭은 현재 진행중인 '고창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서에 담아 승인기관인 전라북도에 하반기 중 신청할 예정이다. 이

후 승인과 고시절차가 완료되면 '고창신활력산업단지'로 명칭 변경이 최종 완료된다.

산업단지는 이번 명칭변경을 시작으로 ESG 친환경 산업단지로 변신한다. 특히 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며 물류수송 최적 지인 장점을 최대한 살리게 된다.

삼덕읍 고창군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신성장 엔진으로서 자리잡고, 기업과 사람, 돈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